



WINTER 2019
VOL.196

홀트소식



겨울 이야기

지난 10월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에서 아동과 인솔교사 12명이 큰 기대와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선선한 가을바람 또한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아이들을 반겨 주었습니다. (19p 계속)



Contents

- 04 꿈과 희망 1
세 식구의 보호자가 된 푸름이의 겨울
- 07 꿈과 희망 2
"강한 의지에 실행력이 더해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10 꿈과 희망 3
마포구 아동정책참여위원회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
- 12 나눔 기업 1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천사가 함께하다
- 14 행복한 가족 만들기 1
"I'm ok"
- 16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1
오늘은 '파랑새 꿈날' 봉사 Day!
- 19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2
'꿈+재미' 한국은 처음이지?
- 22 행복한 가족 만들기 2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공간
- 24 나눔 기업 2
65년 우정! 나눔을 통해 다시 한번 꽃 피우다
- 26 사랑을 행동으로
Happy Holt Day, 홀트패밀리 컵 만들기!
- 28 행복한 가족 만들기 3
'엄마가 뭉쳐야 뜬다'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홍현국 이사장(공인회계사) | 임부웅 이사(前 HICS 부회장) | 정용근 이사(前 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 백 이사 |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 박철용 감사(삼덕회계법인 부대표)

아동/청소년복지
 본부 국내입양팀 T.02) 331-7000
 경기지부 T.031)217-5999
 광주지부 T.062)227-8877
 대구지부 T.053)756-0183
 부산지부 T.051)465-0224
 인천지부 T.032)424-0145
 충청지부 T.042)586-1983
 전주영아원 T.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홀트의원 T.02) 331-7060

미혼부모가족복지
 미혼한부모지원센터 T.02) 331-7080

고운돌 T.031)216-9004
 아름답 T.02)334-4614
 아침뜰 T.042)585-3004
 광주클로버 T.062)361-5900
 대구클로버 T.053)654-0181
 대전클로버 T.042)583-4006
 마포클로버 T.02) 322-3325

장애인복지
 홀트복지타운 T.031)914-6631
 홀트강동복지관 T.02)2251-6100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T.031)929-1500
 홀트보호작업장 T.031)914-6629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T.031)914-6635
 홀트학교 T.031)915-2912

지역사회복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분리복지관·늘봄심리상담센터 T.053)563-1007
 홀트수영복지관·가족상담센터 T.051)760-3600
 운봉복지관·아동발달지원센터 T.051)543-2431
 하남복지관·아동가족상담센터 T.031)790-29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복지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영유아복지
 마포어린이집 T.02) 334-4743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중동어린이집 T.02) 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본부 해외사업팀 T.02) 331-7085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196호·계간 발행일 | 2019년 12월 23일 발행인 | 홍현국 편집인 | 김호현
 발행처 |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1899-0923 후원ARS | 060-700-1006
 홈페이지 | www.holt.or.kr 디자인 | 일투다투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r@holt.or.kr

세 식구의 보호자가 된 푸름이의 겨울

아동청소년팀 정수영 · 나눔협력팀 옥지희 · 홍보팀 황지혜

위기가정 주거지원 캠페인으로 소개된 푸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고등학교 2학년 소녀입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남은 세 가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치매가 있는 할머니는 푸름이에 게 돌도 없이 소중한 가족입니다.



푸름이네는 세 식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푸름이는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인해 아버지와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보살핌이 중요한 시기, 푸름이에게 사랑과 정을 나누며 함께지낼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신장애가 있어 장애등급을 받으셨고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사춘기 딸과 대화를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푸름이는 종종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어릴 적부터 푸름이를 키워주신 할머니에게도 2~3년 전부터 치매증상이 나타나 푸름이는 사실상 가장이 되었습니다. 푸름이네 가족은 할머니와 아버지가 폐지수거를 하며 얻는 수입이 전부라서 세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푸름이는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 늘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깨의 무게감에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푸름이의 방이 없는 푸름이의 집



푸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오후 5시가 넘습니다. 가방을 메고 할머니가 계산 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18세 사춘기 소녀 푸름이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방 한 칸이 전부인 푸름이네 집은 원래 상가공간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채광이 좋지 않아 벽면 곳곳에 곰팡이가 슬고 내부가 훼손되었지만, 더욱 추워지는 겨울에도 의지할 곳은 낡은 연탄보일러가 유일합니다. 그마저도 치매인 할머니와 정신질환을 앓는 아버지는 자꾸만 연탄 가는 것을 잊습니다. 온기 없는 냉방에서 잠든 밤을 셀 수도 없습니다.



상가였던 푸름이네는 집 천장이 높고 옷풍이 있어 늘 패딩을 입거나 옷을 두겹게 입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장판 하나에 여러 겹의 이불을 깔고 두꺼운 패딩까지 입으면 세 식구만으로 한 방이 가득 찹니다. 방은 좁은데 잡동사니는 많아 늘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어린 푸름이 역시 청소가 쉽지 않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에 '방 한 칸도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혼잣말을 하시며 한숨 짓습니다.



오늘도 푸름이는 등교를 위해 연탄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나와 교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불편한 일상이 익숙해진 푸름이지만 1~2년 뒤면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공간과 더불어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푸름이에게는 '요리사'라는 멋진 꿈이 있습니다. 요리사가 되어 소중한 가족인 할머니와 아버지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맛있게 만들어 누구보다 먼저 대접해 드리고 싶다는 예쁜 마음의 푸름이. 희망 가득한 세 식구가 꿈꾸는 보금자리에 언제나 온기가 가득하도록 푸름이네를 응원해주세요.

“강한 의지에 실행력이 더해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팀 정수영 · 홍보팀 황지혜



2019 아름다운 청소년 전성현 학생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살 전성현입니다. 평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강제징용 'REMEMBER THE TRUTH'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청소년에 선발되고 활동하면서 홀트아동복지회와 입양대기아동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 캠페인 소개

홀트아동복지회는 푸름이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지원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후원하기 및 자세한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위기가정 지원 캠페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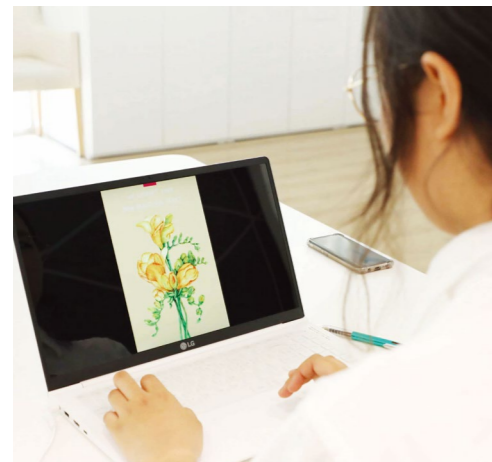
Q2. 입양대기아동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름다운 청소년에 선발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입양대기아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관련 정보를 익히며 아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침 새로운 주제의 프로젝트를 계획하던 중이었고,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선발되며 많은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입양대기아동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3. '프리지아 뱃지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2017년부터 기획하고 진행한 강제징용 'REMEMBER THE TRUTH'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여름에는 입양대기아동을 위한 '프리지아 뱃지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뱃지 디자인에 대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예쁜 디자인에 의미까지 담은 꽃을 찾던 중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꽃말을 가진 '프리지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뱃지 디자인을 완성하고 제작한 뒤, 온라인에 업로드 하여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진촬영까지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입양대기아동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프리지아 뱃지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의 '프리지아 뱃지 프로젝트'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목표수량 및 금액을 설정하고 기간 내 달성하면 결제가 이루어지고 제작한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를 통해 오픈 11일 만에 100개 한정 수량의 100%를 달성했으며 뱃지 디자인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글도 많았습니다.



Q4. '프리지아'를 주제로 2차 펀딩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신가요?

1차 프로젝트의 목표는 샘플 제작, 시장 반응을 확인하여 프로젝트의 상품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100개 한정 수량의 펀딩을 진행하였고, 순수이익금 약 30만원을 입양대기아동을 위해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1차를 통해 배운 것들로 보완한 2차 프로젝트에는 뱃지와 함께 프리지아 수채화 손 그림엽서와 더불어 와펜, 스티커, 손거울 등의 굿즈를 고민 중에 있으며, 12월중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tumblbug.com)'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Q5.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변화된 가치관 등이 있을까요?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실행한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에 실제로 부딪히며 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 소중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대법원에서 있었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함께했는데요. 승소 판결에 기뻐하시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모은 후원금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각종 기사와 뉴스로 소개되었으며, 전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가면서 저는 강한 의지와 그에 맞는 실행력이 더해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Q6.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어 경영이나 창업 관련 학과로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격한다면 대학생으로서 배우고 싶었던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각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계획입니다.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오래 계획해온 많은 일들을 모두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은 계획들 중에서 일회성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진행에서 더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항상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아름다운 청소년이란?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발견하고 열정으로 실천하는 청소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을 정진하는 청소년,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의 청소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을 연 1회 선발하여 꿈 지원금과 다양한 활동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아동정책참여위원회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

화이트블판러, 세움(세상을 움직이다) · 복지전략팀 이순주



지난 11월 2일, 마포구의회에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포구 아동정책참여위원회(이하 아참위)인데요. 아참위는 올해 6월부터 진행된 아동권리 옹호사업 '화이트 블판러, 세움(세상을 움직이다)'의 일환입니다. 먼저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아동권리 공모전'을 진행했고, 공모전 수상자 중 마포구에 거주하는 27명의 아동들로 아참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회와 마포구청(유동균 구청장)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아참위가 마포구의회에 방문하여 어린이 모의의회를 체험했습니다. 마포구의회의 이필레 의장, 김영미 복지도시위원장, 강명숙 의원, 김성희 의원, 이민석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어린이 모의의회는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을 맡아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역할을 분담해 본회의 개의, 사무국장 보고 사항,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과 답변, 안전 심의 등 실제 의회 운영 방식과 똑같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마포구 아참위는 어린이 모의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6가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 3가지 영역인 놀이와 여가, 생활과 환경, 안전과 보호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 그에 대한 안전을 어린이 모의의회에서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의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놀이와 여가	놀 수 있는 공간과 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생활과 환경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
안전과 보호	학교 앞 스쿨존 관리를 강화해 주세요.

어린이 모의의회가 끝나고 함께해주신 마포구의회 의장과 의원분들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필레 의장께서는 “모의의회에 참여해보고 느낀 경험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아동정책조사, 분석,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월 말에는 정책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교육, 심리정서, 의료, 주거, 자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아동권리 공모전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천사가 함께하다

엔제리너스X보바스병원이 함께하는 중증장애아동 의료지원 · 나눔협력팀 채성현

LOTTE GRS



보바스기념병원



천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펼치며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려오는 신의 대변자처럼 인식하실겁니다. 지난여름과 가을 홀트일산복지타운/요양원에 정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라는 이름으로 내려와 장애아동과 생활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함께 해준 '엔제리너스'입니다.

엔제리너스는 우리회와 오랜 인연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함께 해온 롯데지알에스(GRS)의 커피 브랜드로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이하여, 브랜드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장애아동의 의료지원을 위해 우리회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회공헌 사업에는 우리나라 재활치료의 선두주자인 '보바스기념병원&어린이의원'이 또 하나의 천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엔제리너스와 보바스병원은 지난 9월 3일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장애가 있는 시설생활자에게 보톡스 치료와 보조기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활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공식적인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그 어떤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양한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강정우' 아동의 경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고 장애 판정을 받아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장기간의 입원치료와 재활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엔제리너스와 보바스병원은 현재까지 1명의 아동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6명의 중증장애아동에게는 보톡스 치료를, 그리고 10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기를 지원하여 더 나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도 엔제리너스와 보바스병원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할 것이며 천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천사들의 활동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I'm ok”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 미혼한부모지원센터 원나현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공모전을 참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일을 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 김수민입니다. 독립애니메이션팀에서 활동을 하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개인 작품을 혼자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 하려 하니 담고 싶은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 사이트를 보다가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이라는 단어를 보고 참가하게 되었어요. 저도 한부모가족의 자녀거든요. ‘첫 시작은 내 이야기를 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 사진 중앙 노란옷을 입은 김수민님(삼남매 중 둘째)의 행복한 가족

Q2. 작품 영상이 궁금해요. 어떤 메시지를 주로 담고자 하셨나요?

예지라는 아이가 제목을 정하지 못하고 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해요. 미혼한부모가족인 예지와 은서가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 예지 엄마에게 질문을 던져요. 예지 엄마가 난감해하는 것과 달리 두 아이는 편견에 간하지 않고 해맑게 대답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제가 자라면서 느꼈던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지와 은서라는 두 아이를 통해 담으려고 했어요. 예지가 마지막에 일기 제목을 ‘I'm ok’라고 적으며 영상은 끝이 나요. 어렸을 때 저는 정말 괜찮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이 없었다면 더 밝게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Q3. 작품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이나 변화된 생각 등이 있을까요?

작품을 만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듣고 싶어서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대화를 나누었고, 편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시선에 대한 편견이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Q4. 수상 소감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 홀트아동복지회와 후원사인 한샘에 감사한 마음이고,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기뻐요. 작품을 완성하고 엄마에게 보내드렸는데 “네 목소리냐ㅋㅋ”가 반응의 전부였어요. 엄마는 편견에 무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저를 홀로 키우셨던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자리를 통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편견에 대해 생각하고 활동하는 창작자가 되겠습니다.

2019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한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작품명	수상자/팀명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I'm ok	김수민
최우수상	미혼부 인육씨의 평범한 일상이야기	공주님 나라
우수상	엄마는 어머니니까요	온누리
	우리는 []입니다	SWU팅 필름
장려상	행복한 아빠와 나	미문
	행복당당 한부모	행복당당팀
	다양한 과일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SSS

오늘은 '파랑새 꿈날' 봉사 Day!

아동청소년팀 김현영, 정수영 · 홍보팀 황지혜



홀트아동복지회는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매년 30명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성장과 각자의 다양한 빛깔의 자립을 위한 2년 단위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2기' 청소년들이 홀트복지타운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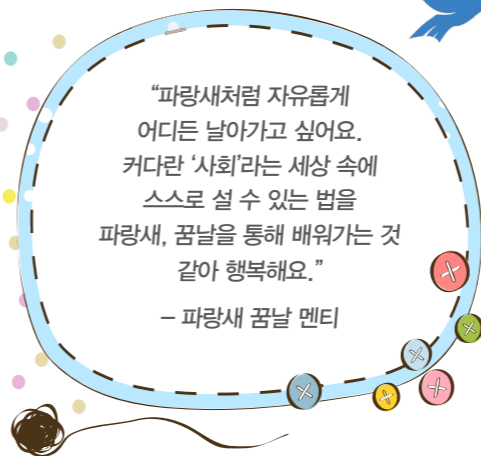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하 파랑새, 꿈날) 2기 친구들은 총 30명이고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동아리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동아리에는 멘토 선생님과 파랑새 멘티 친구들이 함께 교육과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멘토링 활동의 일환으로 일산에 위치한 홀트복지타운 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첫 인연을 시작하며 홀트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한 홀트복지타운 기관·기념관 라운딩은 친구들에게 꽤나 인상 깊었나 봅니다. 친구들은 라운딩을 마치고 '홀트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매우 인상 깊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홀트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주인공으로 선발된 것이 기쁘다'는 등의 다양한 소감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지난 8월 첫 번째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수학능력시험까지 마친 뒤에 이어진 두 번째 만남임에도 서로 부둥켜안고 손을 맞잡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멘토 선생님과 멘티 친구들. 라운딩 후에는 맛있는 점심식사와 동아리별 멘토링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보드게임, 사랑의 언어, 진로 고민, 메시지 나누기 등 멘토 선생님이 준비해 온 활동을 하며 이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멘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언니, 오빠, 이모, 삼촌과 같이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모두 보호작업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지루할 것 같다고 걱정한 친구들은 막상 시작하니 누가 더 열심히 하나 경기하는 듯 손이 바빠 움직이며 쇼핑백 손잡이 끈 매듭 작업과 쇼핑백을 접어 속지를 넣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생활자분들과 스스럼없이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의 친화력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곧이어 친구들은 수능시험 경험담, 취업하여 시작한 사회생활, 자립하여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세 시간간의 시간이 지나고 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어서면서도 쇼핑백을 접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란?

시설에서 퇴소를 앞두고 앞으로 독립하여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이 순조로운 자립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며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퇴소 전·후 총 2년간 경제적으로 슬기롭게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하고 안정적인 삶의 개척을 위한 진로지원과 살아가는데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멘토링 활동을 통해 관계를 넓히며 전문 심리 상담을 연계하거나 자립지원훈련 워크숍 등의 정서지원을 진행합니다.

‘꿈+재미’ 한국은 처음이지?

해외아동 초청연수 · 해외사업팀 박소현

지난 10월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에서 아동과 인솔교사 12명이 큰 기대와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선선한 가을바람 또한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아이들을 반겨 주었습니다.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2019 해외아동 초청연수는 해외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6박 7일간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의 기회(역사/문화/자연/IT 등)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더 큰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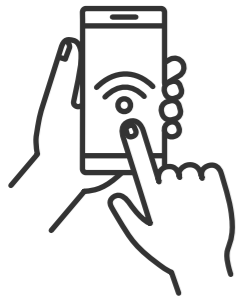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소개하면 예쁜 선물을 드려요!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0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신다면, 아이들과의 결연후원으로 새로운 인연을 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 혼자 후원의 보람을 느끼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리면 더 기쁜 연말연시가 될 거예요.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지인에게 소개하시면 예쁜 선물을 후원자님께 보내드릴게요.



□ 참여대상 : 홀트아동복지회 모든 후원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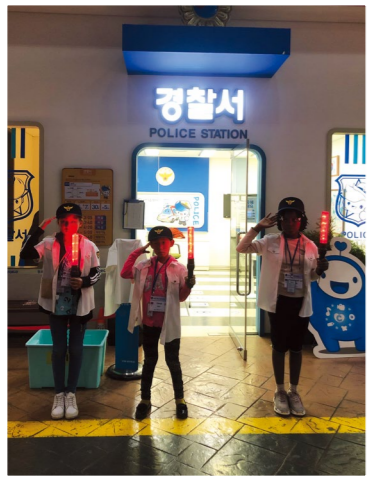
□ 참여방법

- ① 허브 홈페이지 주소 (www.holt.or.kr/hub)를 넣고 지인에게 허브를 소개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 ② 메시지를 캡처해서 홀트아동복지회 공식연락처(010-6223-8674) 문자를 보내주세요!
- ③ 확인문자를 받으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선물이 소진되면 이벤트가 종료되니 참고해주세요.

향기나는 결연, 허브 지인 추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에그민트에서 손수 제작하여 후원 해주신 예쁜 배넛저고리와 거즈담요, 모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홀트드림센터에 출석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맞벌이·조손·한부모가정의 아이들로 부모 혹은 보호자와 함께 마을 밖을 나가는 것조차 흔치 않습니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아이들이 환경으로 인해 주눅 들거나 열등감을 안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높은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매년 해외아동 초청연수가 진행되는데요, 한국 방문을 앞두고 비행기를 탈 생각에 신이 나 밤을 꼬박 새웠다는 아이들, 모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어 긴장할 법도 한데 활동하는 내내 밝은 표정으로 서로 어울려 놀며 친해졌습니다.



센터에서 열심히 준비해 온 춤과 노래로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아이들은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장래희망으로 꿈꾸던 경찰, 소방관과 같은 직업체험과 더불어 드론기기 체험, 피자 만들기, 패션쇼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아이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자동차를 직접 시승해보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 아이들이 매우 흥미롭게 관람하며 많은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롯데월드에서는 인솔교사와 봉사자들도 망설이는 무시무시한 놀이기구를 아이들은 타고 싶다며 두 눈 질끈 감고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스노우파크를 방문하여 태어나서 눈을 처음 보는 탄자니아, 캄보디아 아이들은 눈썰매를 타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각자 다름에도 활동하는 동안 서로 챙겨주고 방긋 웃으며 금방 친해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준비해 온 노래와 춤을 보여주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가 박수로 호응해주고 기뻐 주었습니다.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운 에너지를 전해주는 멋진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센터로 돌아가 센터친구들에게 한국 방문 했던 경험을 얼른 나누고 싶습니다!

미아 다네 (캄보디아)

워터파크, 잠월드, 레일바이크 등 한국에서 한 모든 게 다 기억에 남아 가장 좋았던 것을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경찰관이 되는 체험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저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멋진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아민 에르덴 (몽골)

한국에 함께 온 몽골 홀트드림센터 철명은 태어나기 전 친부를 잃고, 친모는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현재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할머니와 철명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런 가정환경 때문인지 철명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말이 없고 어딘가 주눅 들어 있는 어두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 더욱 눈길이 갔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친구가 한국에 와서 활동할 때는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다른 국가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변화되는 모습에 보는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짹짹마 (몽골 홀트드림센터 교사)



아이들은 긴 비행시간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활동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한국에서의 문화체험은 끝났지만, 7일간의 한국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큰 자량이자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추억과 희망, 응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자국으로 돌아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번 초청연수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한금융투자, 한국머스크, 롯데월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공간

몽골 친길테구 홀트드림센터 개소 · 해외사업팀 한세희



지난 8월 26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길테구 12동에 떠들썩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홀트드림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는 자리였는데요. 평소에는 고요하던 동네에 축제가 열린 것처럼 주민들과 아이들이 북적북적하게 모여 홀트장학생 봉사단 ‘홀빛 프렌즈’가 나눠주는 팝콘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개소식에는 홀트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 친길테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정부관 계자분들, 홀트드림센터 준공과 운영, 꿈나눔 놀이방과 도서관 건립을 후원해주신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정원규 이사장께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 3백만 명 중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울란바토르에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게르촌이 있습니다. 게르촌은 상·하수도과 난방 시설이 없어서 먹고 씻을 물을 먼 곳에 위치한 우물에서 길러야 하며, 생활 오수는 근처 땅에 버릴 수밖에 없고,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을 석탄 난로만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각종 질병과 만성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시 안에서도 친길테구는 빈곤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아침이나 대낮에도 술에 취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아동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친길테구는 몽골 내 아동 학대 신고 번호인 108번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4남매 중 둘째인 바타르(가명)는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심하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동 폭력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엄마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던 중 엄마가 게르를 비운 사이 큰불이 났습니다. 잠을 자던 남매들은 근처를 지나가던 택시기사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집과 살림살이 전부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세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 알코올 중독자 엄마, 술을 사기 위해 학용품을 팔아버린 부모, 어려운 형편으로 고아원에 맡겨졌으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아이까지 친길테구에서 마주한 아이들의 삶은 아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가난과 열악한 환경의 친길테구 12동 게르촌의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과 함께 ‘방과후 돌봄교실’과 ‘데이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친길테구 홀트드림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에서는 센터 건물 준공과 운영, 그리고 놀이 환경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및 놀이방 건립을 후원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은 방과 전·후 돌봄 교실을 통해 교육, 건강, 정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모님이 일터에 나가시면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가정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공식 때 저희가 준비한 작은 간식에도 좋아하며 순수하게 웃음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 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홀트 장학생 이동환

65년 우정! 나눔을 통해 다시 한번 꽃 피우다

풀무원 녹즙 후원금 전달식 · 나눔협력팀 채성현



▲ 2012년 4월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열린故원경선 풀무원 원장의 백수연 때故말리 홀트 前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두 집안은 1950년대 후반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왼쪽부터 말리 이사장, 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 원경선 원장과 사위 김준권 평화나무농장 대표, 사진 풀무원 제공

8월 30일, 우리회 강당에서 아주 특별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65년 전 홀트아동복지회 설립자인 해리 홀트씨와 특별한 인연을 가졌던故원경선님이 설립한 풀무원과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두 설립자의 인연은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하며 시작되었는데故원경선님은 입양아들의 복지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셨고 초대 우리회의 이사로 함께하셨으며, 일산에 위치한 홀트복지타운의 장애인 생활자들을 풀무원에 적극 채용하는 등 홀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전쟁고아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셨습니다.

65년 전, 나눔을 통해 맺어진 우정이 다시 한 번 꽃을 피우게 된 것은 풀무원 녹즙이 이번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미혼한 부모들을 위한 이유식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참석한 남기선 HNRC센터장은 “바른먹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식, 좋은 영양지원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게 되었다”며 “미혼한부모가족의 아이들에게 좋은 이유식으로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기석 대표이사는 풀무원 녹즙의 ‘모닝스텝(판매 영업직원)’에 대한 높은 업무만족도와 미혼한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필요 시 채용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미혼한부모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눔기업 협약식 이모저모



국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심리상담센터 교구 구입 지원

11월 21일, 웨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계열의 총지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홀트아동복지회 심리상담센터 지원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주최로 진행된 ‘피기도 함께하는 행복 나눔 오리 경주 대회’, ‘자선 달리기 대회’,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바자회’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후원금 전액은 2020년 개소할 홀트 심리상담센터 내 필요한 교구 및 물품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홀트 심리상담센터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며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연간 약 1,500명에게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OM’s FESTA flea market’ 개최

우리회는 상반기에 이어 롯데GRS, 롯데자산개발(주)의 후원으로 10월 9일 한글날 롯데를 김포공항점 썬큰광장에서 ‘MOM’s FESTA flea market’을 개최하였습니다. 롯데GRS 샷데 봉사단이 미혼한 부모 셀러 부스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참여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사진 촬영과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나눔문화확산에 동참하고자 ‘박지윤의 옥망래라디오’팀이 특별 셀러로 참여하였는데요. 방송인 박지윤, 개그맨 정범균, 진행자 박준형 씨가 애장품을 비롯한 물품들을 판매하며 뜻깊은 기부 행보를 보였습니다.



키티버니포니 후원금 전달

10월 18일,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kittybunnypony)에서 미혼한부모를 위한 후원금 1,36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키티버니포니는 홀트와 인연을 맺은 후 매년 마켓을 열어 미혼한부모가족과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마켓에만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시는 등 엄마들을 응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appy Holt Day, 홀트패밀리 컵 만들기!

나눔지원팀 송하영 · 홍보팀 황지혜



올해의 마지막 후원자 소모임 '해피홀트데이'가 12월 6일, 우리회 6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금요일 저녁, 한 후원자님의 표현으로는 '입이 돌아갈 만큼의 추위'를 뚫고 놀랍게도 신청인원 모두가 참석해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의 감사했던 마음과 새해에 바라는 소망을 담아 '홀트패밀리컵'을 만들었는데요. 후원자분들이 모인 강당은 '입이 돌아갈 만큼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컵 만들기 시간! 진행을 맡은 서동욱 대표와 유수연 강사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생각난 아이디어를 곧바로 컵에 디자인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분들도 계셨습니다. 홀트패밀리가 된지 20년도 훨씬 넘는 후원자 부부께서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림과 함께 '홀트아동복지회'라는 글자를 넣어주셨습니다. 벌써 여러 번의 해피홀트데이에 참여한 후원자 커플은 서로 알콩달콩 칭찬하고 도와가며 멋진 컵을 완성했습니다. 이날의 최연소 참가자였던 초등학교 자매는 굉장한 미술 실력을 뽐내며 거침없이 그림을 그려나갔는데요. 아무도 생각해 내지 못한 컵의 바닥 부분을 재치 있게 꾸며, 모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컵을 모두 완성하고 난 뒤, 컵을 구웠을 때 의도한 대로 그림이 가장 잘 표현될 것 같은 순위로 1,2,3등을 선발했습니다. 호명을 예상치 못한 분들은 기뻐하시며,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했던 2019년이 뜻깊었고, 2020년도 홀트와 함께 아동과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한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소모임도 함께 모여 컵을 만들면서 올해의 끝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해피홀트데이는 후원의 형태와 모습은 다르지만 사랑과 나눔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후원자 '홀트패밀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작이 사랑이었듯이 세상의 모든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날까지 홀트패밀리로서 매일이 '해피'한 '홀트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 떠나는 특별한 가족여행,뷰티플 맘스데이2 '엄마가 뭉쳐야 뜬다'

미혼한부모지원센터 원나현



“10시 15분 제주행 비행기 손님들께서는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오는 공항에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代)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미혼한부모가정입니다. 난생처음 비행기에 오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엔 기분 좋은 긴장감이, 비행기를 보고 신이 난 아이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곧이어 아직은 어색하고 조금 낯선 공기를 싣고 제주행 비행기가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제주에서의 첫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예쁘게 꾸며진 카페에서 여행을 기념할 가족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계속될수록 씩스러워 쭈뼛쭈뼛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밝게 웃는 사진이 카메라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촬영을 마치고는 새빨간 동백꽃이 방문객을 반기는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에서 탐스러운 감귤 따기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손에 봉지와 가위를 나눠 들고 이 나무 저 나무에서 감귤을 따고 맛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제주에서의 첫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둘째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지만 가족의 특별한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 테디베어 뮤지엄과 아쿠아플라넷 관람, 수영장 물놀이까지 마치고 이번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집단 미술치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옆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집단 미술치료를 통해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던 우리 엄마의 생각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가 기꺼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이랑 같이 여행하는 게 쉽지 않는데 행여 저 힘들까봐 손녀를 저보다 더 살뜰하게 챙기는 엄마 모습에 감동했어요. 버스 이동하면서 그리고 저녁에 치킨 먹으며 엄마와 정말 오랜만에 깔깔거리고 웃었네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표현을 못했던 부분에 있어 묵은 상처와 오해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었고, 서로의 아픈 점을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엄마와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워킹맘이라 아들이 할머니만 찾고 의지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아들하고도 엄청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번 여행을 계기로 더욱 행복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과 함께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언제나 아쉽지만 한 여행의 마지막 날. 직접 사탕을 만들어보는 특별한 경험으로 하루를 열고 새파란 함덕해수욕장을 보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대가 함께 보낸 제주에서의 2박 3일, 그 소중한 추억을 마음 깊이 담고 올라탄 비행기에는 기분 좋은 설렘과 희망찬 기대가 가득합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CJ올리브영과 함께 진행해온 ‘뷰티플 맘스데이’는 미혼한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립 의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여행은 미혼한부모와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여행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미혼한부모가정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천지부
국내입양 인식개선 캠페인**

11월 20일, 인천지부에서는 국내 입양 가정 사진전 및 국내입양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터미널 역사 내에 오고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회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전달하고 홀트아동복지회의 가치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지부
참 행복한 우리가족 워크숍**

9월 27~28일, 대전 충남북 입양가족들과 함께 대전 라온호텔에서 1박 2일 가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80여 명의 입양 가족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화합하고 교체하여 기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광주지부
호남지역 입양가족 캠프 진행**

10월 25~26일, 전북 남원시 켄싱턴리조트에서 입양가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입양가족 125명이 참여하여 아동 놀이치료 활동, 토크콘서트, 남원 춘향 테마파크를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입양가족들이 만나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가까워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지부
우리가족 가을캠프 개최**

11월 8~9일, 경기사무소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하는 입양가족 캠프가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관내 입양가족과 입양가족으로 구성된 강사, 자원봉사자 약 80명이 참석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가족 간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부
대구맘 김지은 대표 탐리더스 위촉**

10월 12일, 다음카페 대구맘에서 개최한 '제14회 아나바다 알뜰장터' 행사의 수익금을 전액 후원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대구맘 김지은 대표께서 우리회 고액기부자 모임 '탐리더스'에 위촉되어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해주셨는데요. 나눔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트복지타운
홀트장애인합창단 정기공연**

'영혼의소리' 합창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이해 10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정기공연으로 도움주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사랑에 대한 감사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합창단이 마음껏 희망과 기쁨을 아름답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트학교
고양 학생 예술한마당 개최**

10월 16일, 2019 고양 학생 예술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홀트학교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고양시 11개 초·중학교가 참가하여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익힌 예술적 재능과 끼를 발표하는 멋진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상을 즐기고, 나누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홀트학교 학생들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행사**

11월 29일,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행사 '당신이 선물한 하루'가 진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의 노래, 바이올린 연주, 태권도 시범 등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축하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준비된 다과와 담소를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연탄지원사업**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탄지원사업을 후원해오는 하남도시공사의 후원으로 올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취약계층 28가정에 총 1만장의 연탄을 지원했습니다.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가정에는 하남도시공사 임직원들과 발로 뛰며 연탄을 배달하여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중증발달장애인 제주도 수학여행**

10월 21~23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운봉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2박 3일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된 소중한 후원금 400여만 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여행을 통해 수학여행의 추억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행복키움 가족걷기대회 개최**

9월 28일, 수청구청과 지역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여하여 '수성구민 행복키움 가족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개 구간의 걷기미션과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된 8개 체험부스를 통해 지역주민이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증대시키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가을맞이 독서특강 개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누가 주인공이 코를 빼어갔을까?', '그림자는 누가 만들까?'의 도서를 주제로 하여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배경으로 창작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주인공의 모습을 떠올리며 색종이를 이어 붙이며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클로버
광주후원회와 함께하는 김장**

11월 21일, 광주후원회(회장 정효례)에서 생활자들의 겨울나기 김장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맛깔스러운 솜씨와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로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하여 생활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함께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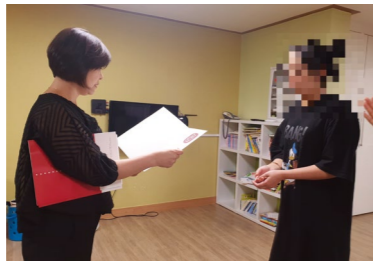
**고운들
입소자 가을여행**

10월 15~17일,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입소자 가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잠수함과 테디베어 뮤지엄, 서커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체험하였으며 흑돼지와 해산물 등 맛집에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와 아이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들
가족 행복한 부산여행**

11월 5~7일, 2박 3일간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바다 전망의 멋진 숙소, 밤바다 요트투어, 부산시립미술관 관람, 휴식을 위한 온천욕, BIFF광장과 자갈치시장, 국제시장에서의 도심투어 등 부산을 마음껏 느끼고 신나게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구클로버
입소자 정리수납교육**

지난 4월부터 입소자실의 정리수납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방과 공동구역을 정리하면서 각자 다른 청소방법으로 인한 작은 오해를 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8월부터는 정리수납전문가2급 자격증 과정에 도전하여 3명의 입소자가 취득했습니다.



**대전클로버
미혼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세미나**

11월1~2일, 6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함께 미혼모자가정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정책 논의,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발표, 사례 중심의 강의 등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도움과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들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책놀이터' 개소식**

12월 3일, KTcs와 KT희망나눔재단 지원으로 아침들 1,2층을 리모델링하여 책놀이터를 구축하여, 아침들 미혼한 부모가족과 KTcs 양승규 사장께서 함께한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시설 아이들은 책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하여 꿈과 상상이 자라나는 특별한 공간을 선물 받아 기뻐했습니다.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다문화가족 모국 춤 페스티벌 수상**

9월 21일, 본 센터의 다국적 자조모임인 Let's Dance팀이 제8회 전국다문화가족 모국 춤 페스티벌 공연에 참가하여 베트남 전통 춤을 선보였습니다. 전국 다문화가족 총 1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금상(2등)과 전라남도 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크리스마스 파티**

11월 30일,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으로 일본 다문화가족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8가족이 모여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부모와 자녀가 일본어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영아원
사랑의 공기제균 청정기 전달**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건이 강이 봉사단'에서 전달한 공기제균 청정기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대기정화 방식을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고, 바이러스 및 세균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웰리스 공기제균 청정기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동어린이집
마포구 열린 어린이집 선정**

11월 28일,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진행된 부모참여 수업과 부모교육, 자원봉사 활동과 같이 다양한 가정연계 활동의 결과로 중동어린이집이 2019년도 마포구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되었습니다.



**마포어린이집
난지 유아숲 체험**

10월 11일, 선선해진 날씨로 모든 아이들이 부푼 기대감을 안고 난지천공원 숲체험장에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코스모스, 갈대, 돌맹이, 낙엽 등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연물 놀이를 통해 변화된 계절과 날씨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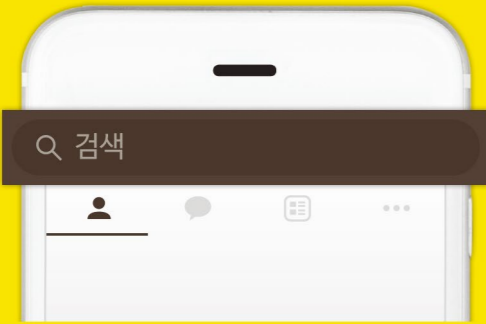


**홀트어린이집
부모님과 함께하는 참여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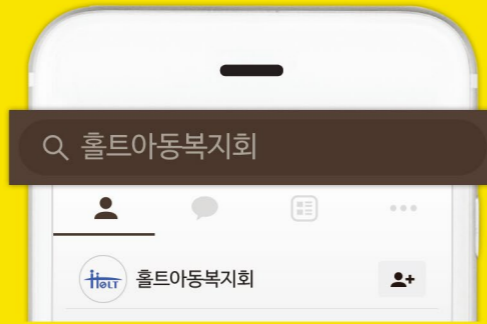
11월 16일, 부모 참여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부모 참여 수업에는 체육, 코앤코, 만들기, 요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가족 간의 화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어린이집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카카오 검색창 아이콘을 클릭



검색창에서 플러스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눌러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입양대기아동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입양대기아동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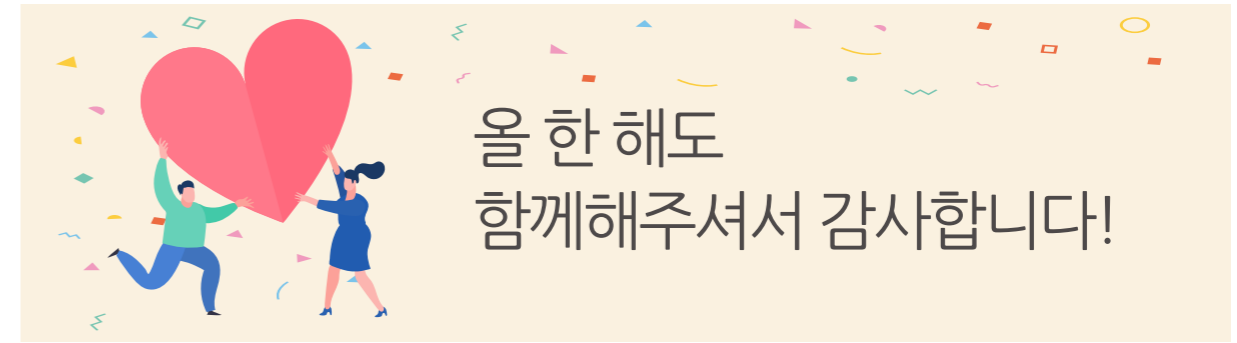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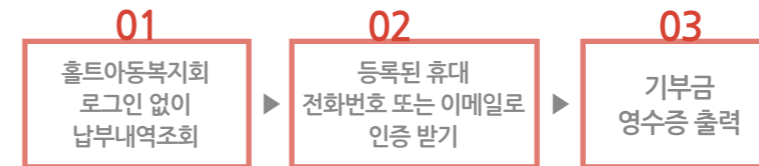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려드려요.

1.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이용하기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후원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유선으로 요청해 주세요.

*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주셔야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관련문의는 나눔지원팀(02-331-7073~6)으로 연락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에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출력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확인인 1월 중 가능합니다.
- 지로납부의 경우 12월 20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해 주셔야 2019년 기부내역에 반영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하고 따뜻한 공간, 스타필드

“스타필드는 홀트아동복지회와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Starfield

